



# Bulletin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참여와 그 후

신경희 | 한국교육개발원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 참여와 그 후

신경희\_한국교육개발원

### 1년전을 돌아보며 - 평가의 시작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는 매년 전국도서관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에 참여하기까지, 평가참여가 의무가 아닌데 힘들게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평가 결과가 도서관을 점수에 따라 우수 도서관과 미흡한 도서관으로 줄을 세움으로써 경우에 따라 우리 도서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리 도서관의 수준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우리 도서관은 운영평가에 2009년부터 참여하기 시작했다. 평가 참여를 위해 지표를 입력하려니, 그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계량화되어 있지 않았고, 그나마 관리하고 있던 데이터 또한 지표와 맞지 않아 무척 힘들었다. 1년동안 수행한 일에 대해 새롭게 다시 데이터를 산출하여 입력하려니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일이었다. 매년 연말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당부분 업무에 대해 계량화했다고 생각했는데 평가지표와는 그 기준이 달라 완전히 새로 산출해야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하나하나 자료를 찾아 기대 반 의무 반으로 지표를 입력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실사 나온다는 연락을 받았다. 전체 619개의 전문도서관 중 55개의 기관이 평가에 참여했고, 그중 수상기관의 4배수를 대상으로 실사평가를 받았다. 실사평가 대상 명단에 우리 도서관이 속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실사를 위해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았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표에 입력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실사를 위해 증빙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2배로 힘들었다. 처음 받는 실사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 증빙자료만 우왕좌왕 준비하였고, 결과는 미역국이었다. 그러나 2009년 도서관 운영 평가를 계기로 우리 도서관의 위치가 전문도서관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고배를 마셨지만 한편으로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다음번에는 꼭 상을 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때부터 2009년 우수 도서관 수상 기관을 대상으로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지를 벤치마킹하고-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정기총회 '우수 도서관 사례' 발표가 아주 유용했다-, 평가지표에 나와 있는 항목중 우리 도서관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정비하기 시작했다.

평가와는 별도로 2009년은 우리 도서관이 엄청난 이벤트를 폭발시킨 해이기도 했다. 도서관 활동에 이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심하면서 새롭게 [신간도서전], [DoUknow서비스], [FARM서비스], [KEDI 사랑의 책 보내기]등을 기획하였다. 신간 도서를 전시하여 이용자가 필요한 도서를 직접 열람하고 구입하는 [신간도서전],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를 브랜드화한 [DoUknow서비스], 교육정책 입안자를 대상으로 맞춤형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FARM서비스], 각자의 서고에 잠자고 있는 책을 수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는 [북크로싱 운동-KEDI 사랑의 책 보내기], 이렇게 4개의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했다. 이벤트로 한 해가 다 지나갔지만 정신없고 힘든 한 해였다. 그런데 그 대가가 바로 나타났다. 바로

2010년 도서관 운영평가에 정성평가로 '도서관 서비스 혁신 사례'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우리 도서관은 위에 언급한 신규 기획 이벤트 4가지를 서비스 개선 실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 2010년 도서관 운영 평가에는 50개의 전문도서관이 참여하여, 수상기관 2배수인 6개의 기관이 실사평가를 받았고, 그 결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영광의 1위,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것이다. 1위의 영광은 한국교육개발원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을 높였고, 연구자들로부터 '우리 도서관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정도 인줄은 몰랐다'며 많은 축하를 받았다. 그 후부터 이용자 교육 시에는 반드시 "우리 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전문도서관으로, 연구자로서 이렇게 좋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운인지 아셔야 합니다."라는 말로 직원들에게 자랑과 더불어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

### 2010년 도서관 운영평가 그 후~



〈뉴욕공공도서관 견학을 마치고 우수도서관 수상자들과 함께. 필자는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

운영평가가 끝나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대구에서 개최한 제47회 전국 도서관대회에서 우수도서관 홍보부스 운영 요청을 받아, 부랴부랴 부스를 준비하여 운영하고, 우수 사례 발표에 이어 각종 보도 자료, 홍보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다. 물론 일만 힘들게 한 건 아니고 수상금과 해외연수라는 보상도 뒤따랐다. 해외연수는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다른 관종의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자들과 함께 4박6일동안 뉴욕으로 다녀왔다. 뉴욕 퀸즈도서관 플러싱 분관, 데이비스 학교도서관, 뉴욕공공도서관을 방문하였고, 모마미술관,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 UN본부 등을 방문했다. 아쉽게도 UN본

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못 만났지만, 연수동안 다른 관종의 유능한 사서선생님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사서들과도 도서관에 대한 서로의 관심사 등을 공유한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다.

벌써 1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금 2011년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받는 시점이 되었다. 평가를 준비한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긴 해도, 우리의 일을 계량화함으로써 전년대비 업무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전문도서관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보상이 기다리고 있기에 망설이고 있는 많은 전문도서관 사서분들께 평가에 참여해보길 적극 추천해 본다.